

2017 새 설계

정 현 복 광양시장

“아이 양육 좋은 도시 총력 추진...시민 삶의 질 높ی겠다”



“어린이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광양을 ‘대한민국 행복수도’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5일 “2017년 광양시의 화두는 어린이와 청년이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끼와 열정을 발산하고, 젊음이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르치는 데 아무 걱정이 없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광양시의 대표 브랜드로 정하고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발기인 구성과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광양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예술과 관광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여가문화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 시장은 “광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교육도시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 선진도시가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생산에서 가공,

3월까지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농업 6차산업화·산단 활성화 박차

교육·복지 등 ‘행복수도’로 육성

유통, 관광농업을 아우르는 6차산업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며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나타났다.

정 시장은 백운산에 추진하는 ‘치유의 숲’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운산 치유의 숲은 옥룡면 추산리 일원 55만㎡의 터에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을 들여 치유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정 시장은 백운산과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사업 기반 조성 계획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정 시장은 그동안 백운산권역을 힐링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관과 산림치유의 숲으로 조성하고, 백운산 둘레길을 개통했으며, 섬진강권역은 느린이글 자연리조트와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기반 조성해 나갔다.

정 시장은 지난해의 시장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행복수도 광양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

야로 된 결과 많은 기쁨과 보람이 두드러진 한해였다”고 자평했다.

정 시장은 “무엇보다 지난해엔 도시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120건에 361억원을 중앙부처 공모·시장사업에 반영하는 등 12.7%나 증가한 380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면서 “특히 자체 세수 확충에 주력한 결과, 시 재정규모 7000억원 시대를 열고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점이 기억에 남는 시장 중 하나”라고 답했다.

정 시장은 또 “지난해 익산산단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됐으며, 포스코와 2차 전지용 리튬생산 투자협약 체결,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항만 육성,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R&D센터 착공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 같은 지역발전이 인구 유입도 견인해 최근 광양읍이 승격 67년 만에 최초로 5만명을 돌파하는 경사가 있었고, 광양시 인구가 14년째 꾸준히 증가해 역대 최대인 15만 5000여명을 기록하는 결과물을 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교육 부문에서는 “2년 연속 전남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했고, 주요대학 합격생이 250여 명에 달해 명문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굳건히 하고 있다”면서 “백운장학금 수혜 대상도 초·중등 학생과 예체능 학생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2017년 주요 역점 사업은

-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
- ▲청년에게 희망 주는 정책 강화
- ▲7개 권역별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개선
- ▲오는 3월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출범
- ▲6차산업 활성화로 농업 부가가치 업그레이드

지역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지나해에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선 결과, 119개 기업을 유치하고, 91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익산산단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포스코와 2차 전지용 리튬생산 투자협약 체결,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항만 육성,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R&D센터 착공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같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동력으로 인구 3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해 중동지구 택지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성황·도이, 와우, 광영·의암, 목성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광양시 작년 공모·시장사업 122건 수상...371억원 확보 성과

광양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전남도가 주관한 각종 공모·시장사업에서 122건을 수상해 37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0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0억원, 국토교통부의 광영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60억원, 전남도의 디자인시범거리조성사업 20억 등 총 75건

360억원이다.

시장사업으로는 2016 전국 보육인 대회 국무총리상, 안전한국현원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2016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등이다.

시는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중앙부처 주관 사업 24건(최우수 5, 우수 14, 장려 1, 기타 4)과 전남도 주관 사업 23건(최우수

4, 우수 9, 장려 6, 기타 4) 등 총 47건을 수상해 사업비 및 시장규모로 11억을 확보했다.

최석훈 광양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 해 이룬 성과는 2015년도에 비해 공모사업은 13.5%, 시장사업은 20.5%가 증가한 것”이라며 “올해에도 연초부터 신규사업 발굴을 물론 매년 시행하는 사업도 빠짐없이 응모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경제청 작년 1조5800억 투자 유치

4460명 일자리 창출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한해 1조 5800여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고 44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해 대내외으로 불리한 투자유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기업설명회(IR)와 수도권 지역 잠재투자가 초청 설명회, 방문 상담을 하는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산해양산업 1200억원, 금호석유화학 900억원, 한성파넬스 600억원, 현대제철 1488억원 등 모두 1조58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다. 에이치에이엠 등 외국인 투자기업 4곳에서 659억원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성과도 포함됐다.

또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보일에너지, 글로벌에너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3천억원의 투자 의향을 끌어

내는 등 27개 기업과 1조 429억원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2004년 개청 이후 모두 254개 기업 170억 달러의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4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권오봉 청장은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0년까지 25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내년도 투자유치 목표를 24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내년에도 많은 국내외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경원기자 kkw@kwangju.co.kr

와우지구 행복·국민임대주택 들어선다

LH와 700세대 건립 계약 체결...2018년 착공

광양시 와우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광양시는 “최근 LH공사와 공동주택부지 2만1984㎡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광양 와우지구 조감도

LH공사는 오는 2018년 착공을 목표로 행복주택 300세대와 국민임대주택 4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층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돼 젊은 인구가 많은 종마동 지역에서 최적의 주거환경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변낙현 광양시 택지조성팀장은 “그 동안 LH공사를 수차례 방문해 와우지구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노력

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광양시 마동 와우마을 일원 63만㎡에 추진하고 있는 와우지구 택지조성사업은 3700여 세대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광양시는 현재 와우지구의 남은 택지(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택지분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시 택지조성과를 방문해 원하는 필지를 신청한 뒤 보증금 10%를 납부하고 1년 이내에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광양시-LF네트웍스

지역협력 이행 협약식

LF스퀘어 오늘 사전개장

광양시는 “최근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 이행 협약식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재현 광양시의회 의장, 김민호 ㈜LF네트웍스 대표이사, 백운산 광양지역경제활성화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에 따라 LF측이 지역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약속하는 광양시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18층 규모의 골프장 조성, 객실 150실 규모의 호텔 건립, LF스퀘어 5년 이내 현지 법인화 추진, 예구근근공원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다. 또 지역 패션업 상인의 우선 입점 지원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판매·홍보 공간 제공 등 지역 상인과의 상생 내용도 있다.

LF네트웍스는 6일 광양시 광양읍 덕레리에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을 사전개장하고 영업을 시작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백범대교 500m 남구대교

大山프리모가발